

'더 가볍게, 더 든든하게'

전북도, 소상공인 전용 '착한론' 300억원 추가 투입 출시 3개월만에 전액 소진... 시기적절 사업 입증 전북은행 출연금 20억원 확보... 추가 지원 이끌어

전북 소상공인 전용 착한대출인 '착한론'이 300억원 추가 투입된다. 지난 14일 전복은행, 전북 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4개 기관과 300억원 규모의 '착한론 플러스 지원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6면)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400억원 규모로 글자 그대로 대출인 '착한론'을 신설 운영했다.

그런데 출시 3개월만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전액 소진되었고, 지원을 받고자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지는 이

례적인 대박 행정을 펼쳤다. 자금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없어 제1금융권 대출마저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그야말로 단비 같은 존재였으며 출시 3개월만에 1,001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다.

이에 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착한론'이 단기간에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은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입증됨에 따라 착한론 플러스 특례보증을 기획하고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협력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전복은행으로부터 운영재원

으로 20억원의 특별출연을 확보하고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300억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출금리(3%대) 중 2%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하여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대 수준이며, 최대 3천만원 한도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대출기간 중에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는 특별한 보증상품이다.

특례보증 상담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 또는 전복은행 각 영업점으로 문의 가능하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평소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면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며 "착한론 플러스로 '더 가볍게, 더 든든하게, 더 따뜻하게'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이 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새농민 전북도회 임원진, 전북도청 방문
한국새농민 전북도회 이기성 회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진이 지난 14일 전북도청방문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과 새농민회 육성지원사업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가을철 영농 대비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추진

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도 시행 안전 위한 의식개선 홍보 병행

전북도는 수확기에 많이 이용하는 농업기계 정비·점검을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도는 농기계 점검·정비를 통해 농기계 고장 발생을 최소화하여 적기영농을 할 수 있도록 9월 6일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수리대상 농기계는 가을철에 주로 이용하는 트랙터, 콤팩트, 건조기, 관리기 등이며 부속작업기도 포함된다.

순회수리 점검·정비 서비스는 무상(부품대금 실비 부담)으로 실시하며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사후관리업소로 이동시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농기계 수리봉사에는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 LS엔트론, 아세이텍, 신흥기업, 한성T&H 등 7개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순회수리봉사 활동은 7개반으로 편성 운영되며, 전문 수리기사 11명과 9대의 차량이 도내 14개 시·군에 지원 활동을 펼친다.

순회수리봉사는 각 제조업체별 순회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순회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기계 대리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투명한 석유유통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농기계 연료 품질점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농기계 연료를 시료 채취하여 농업인에게 품질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로써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방법, 소비자 신고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농기계 순회수리와 더불어 가을철 늘어나는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농기계 안전운행,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와 농기계 점검·정비의 습관화 등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사업,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은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부착 사업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무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보험료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김진성기자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전범기업 제품 구매 않겠다"

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국 광역의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 등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 쟁점사항 설명하며, 최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일본 아베정부를

규탄했다.

문승우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생활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전복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서울 중구 퇴계로 26가길 6)를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성기자

최영심 도의원, 보건위생용품 지급 정책도입 간담회 실시

전북도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용품 지급 정책 도입을 위해 최대 정책 수혜자인 도내 여성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1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여성 청소년 대상 보건위생용품 지원 정책 도입을 위해 도내 여성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원이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도내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 이후 최대 정책 수혜



자인 전주시 여고생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는 전주시 지역 특성화고와 일반고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의 여학생들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학생들은 올해 전북교육청에서 사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위생용품 지급 사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이나 정보제공 및 설문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무료로 보건위생용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위화감을 주기도 하고, 일부러 지원을 받지 않는 친구들도 있다"며 "여성의 월경권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8월 말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전라북도 담당자는 "모든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원 방법이나 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심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작년 한 해 70% 가량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민감한 청소년 시절 아이들을 위축시키고 위화감을 주는 등 역기능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확대 지원할 경우 최대의 정책 수혜자인 여성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정책 수립 시 이들의 의견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시, 전북 유일 지방재정 확대 우수 지자체 선정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청년일자리사업 등 주민편의 증대

자립도시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상반기 지방재정 확대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 시군에서 유일하게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지역활력 제고,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경시기, 규모, 일자리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8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경기불황, 소비경제 위축, 고용현황 악화, 미세먼지 악화 등의 환

경을 극복하기 위해 1회 추경을 전년보다 빠른 3월 21일에 완료했으며, 이러한 조기 추경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 했다.

또한 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목적예비비 사업을 포함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389억원, 회담근로 및 청년일자리사업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분야 123억원, 월평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등 관광기반 조성에 36.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23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증대에 미중용 역할을 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이러한 성과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2018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확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에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 했으며, 지난 1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 및 전국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한바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